

문화가 꽃피는 나주 도래마을 옛집



나주 도래마을 옛집에서는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프로그램으로 '잊혀져 가는 우리 동네 옛이야기를 찾아서'가 진행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나주 '문화가 있는 날' 행사 다채

연말까지 '옛 이야기 찾아서' 진행
30일 음악회·마을 스케치 체험
나주문화재단연구소 '문화재 사랑방'도
전문가 마한사 등 주제 발제·토론

최근 '문화가 있는 날'은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린던 데서 한 발 나아가 행사 일차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변신했다. 나주 지역에서 의미있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새롭게 시작돼 눈길을 끈다.

어름밤, 나주 도래마을 옛집에서는 문화꽃이 피어난다. 도래마을은 남도의 대표적 전통마을로 나주 계은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151호), 우남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165호), 계은정 등 18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지어진 가옥과 정자가 모여 있는 곳이다.

특히 '나주 도래마을 옛집'은 시민들의 후원과 기증으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통해 2006년 보존돼 한옥숙박체험, 강연, 음악회 등 문화프로그램이 열리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는 곳이다.

도래마을옛집은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으로 연말까지 '잊혀져 가는 우리 동네 옛 이야기 찾아서'를 진행한다. 재단법인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이 사라져 가는 문화유산과 전통마을, 지역문화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에는 '음악이 꽃피는 한옥' 공연이 열린다. 'N뮤지크'가 함께하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강윤숙 재즈 콰르텟이 영화 '씨네' 주제곡과 '폐기와 베스' 중 '썸머타임'을 들려주며 테너 김백호, 소프라노 노연선이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배사메 무초, '오 나의 태양' 등을 선사한다. 음악



마한축제의 한 장면. <광주일보 자료사진>

회는 오는 9월 27일과 10월 28일 두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공연 전에는 화가 현운애씨와 함께 도래마을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둘러보고 스케치를 해보는 미술체험프로그램(사진 신청)이 열리며 9월 2일(오후 1시)에는 최현순 명인과 함께 전통 염색에 대해 배우고 예코백에 쪽염색을 해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이재권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래마을 문화유산 답사프로그램이 열린다.

스케치여행은 오는 9월 27일, 10월 29일에도 열리며 염색체험(9월 30일·10월 28일), 해설답사(9월 30일·10월 28일)도 마련돼 있다. 신청 후 무료 참여. 도래마을 옛집은 수~일요일(오전 10시~5시) 문을 연다. nt-heritage.org. 문의 061-336-3675, 02-3675-3401.

국립나주문화재단연구소(소장 지병목)는 문화재를 매개로 지역 주민과 교류와 협력, 소통을 하는 '문화재 사랑방'을 운영한다. 오는 30일부터 11월까지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운영하는 '문화재 사랑방'은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을 매개로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문화유산 정보를 나누는 자리다. 프로그램의 가장 특징은 관련 학자와 전문가가 아닌 지역 주민을 초대로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일상생활 속 문화유산과 관련된 사례를 듣고 공유한다는 데 있다.

이번에는 나주 고대사와 유적지, 출토 유물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행사 첫 날(30일)은 이경용 연구원이 '고흥 아막고분을 통해 본 삼국 시대 철제 갑옷 및 투구복원'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한 오동선 학예연구사가 '나주 정촌고분을 통해 본 영산강유역 마한사회의 성격'에 대해 참가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9월 27일은 이해원 연구원과 이지영 학예연구사가 각각 '영산강유역 원통형 토기와 대형옹관 실험고고학적 연구', '나주 오랑동 요지를 통해 본 영산강유역 옹관가마의 성격'에 대해 발제와 토론도 이어진다.

10월 25일은 이등곤 연구원이 '호남지역 지식묘의 세계유산으로 가치와 과제'를 조명한다. 아울러 성윤길 연구원은 '영산강유역 문화유산 자연화 종합학술조사의 성과와 과제'(불교문화유산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11월 29일에는 이해연·전용호 학예연구사가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속유물 보존처리와 성과와 과제', '호남지역 발굴 수요조사 성과와 과제'(장흥 풍길리 청자요지, 순창 농소고분 성과를 중심으로)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다.

문화유산에 관심이 있는 광주·전남 지역 주민이라면 참여할 수 있으며 문화재사랑방의 규모를 고려하여 매회 20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첫 번째 교육인 오는 30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국립나주문화재단연구소 누리집(nch.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으로 접수한다. 참가비는 무료. 9월, 10월, 11월 행사 접수일은 국립나주문화재단연구소 누리집에서 공지할 예정이다. 문의 061-339-1120. /김미은기자 mekim@·박성천기자 skypark@

광주 지역문화 포럼 어떤 말 오겠나

문화담론 계간지 '창' 발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백수인)이 발행하는 문화담론 계간지 '창' 39호(사진)가 나왔다. '특집 기획'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정상화와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던 지역문화포럼을 중계했다. '문제인 정부 문화정책과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박해광 전남대 교수와 엄방렬 전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의 발표문과 김병석 아시아문화원장, 박강배 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 박진현 광주일보 편집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김인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정두용 청년문화허브 대표 등의 토론문이 실렸다.

'문화인 탐구생활'에서는 역사와 문화원형을 찾아내 시민들로 하여금 광주와 남도의 기억을 걷게 하는 현직 역사교사인 노성태 향토사학자를 소개했다. '문화포커스'는 광상회 광주시 청년정책과 주무관이 '오일과 촛불, 지역과 청년'을 주제로 '자치와 분권'이 지역 청년의 삶과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 말한다.

'문화현장'에서는 김윤현 시인이 '하얀 나비'의 가수 김정호의 예술혼을 다루고 있으며, 조현희 광주도시여행청 대표는 '아름다운 사람길 도심관광트레일' 개발을 토대로 광주의 은밀한 매력과 의미를 조명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정남진신인시문학상에 성금숙·김경린 시인

시상식 10월28일 장흥 한국문학특구포럼서

제2회 정남진신인시문학상에 성금숙 시인과 김경린 시인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으로 각각 '우리의 목'의 4편, '일요일의 연대기'의 4편.

지난해 제정돼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정남진신인시문학상은 장흥문화원(이금호 원장)과 계간 '시산맥'(문정영 발행인)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장흥군과 한국문학특구포럼추진위원회가 주최를 한다. 전국 각지의 신인들을 대상으로 공모하며, 문학성이 가장 우수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전기철·배홍배·조운희 시인 등 심사위원들은 "성금숙 시인의 작품에서는 감각적 경험에 의존하면서도 어떤 1차적 묘사도 제외한 채 묘사되지 않은 전제들의 여백 속에 숨은 대상을 묘사한다"고 평했으며 "김경린 시인의 작품에서는 시에 쓰인 소재나 시대와의 상관성, 인간 생활의 반영 등의 시를 보는 시각의 문제로



성금숙 김경린

부터 자유롭다"고 평했다. 이번 심사위원은 '시산맥' 발행인 문정영 시인, 전남도 수상자인 강주 시인이 맡았다. 수상작품과 수상소감, 심사평 등은 계간 '시산맥'을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한편 시상식은 10월 28일 장흥에서 개최되는 2017년 제7회 한국문학특구포럼 행사장인 장흥군민회관에서 열린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사직공원 등 전국 8곳서 '찾아가는 어르신 공연'

어르신들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예술적 재능을 보유한 어르신들이 공연으로 찾아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이경동)가 함께 추진하는 '2017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예술 공연'이 광주 사직 공원 등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전국 대표 공연 8곳에서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2017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예술 공연'은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능동적인 문화예술 활동들

지원하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서,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일반적인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과 달리,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공연자가 되어 주는 세대의 관객들에게 직접 찾아간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학춤, 퓨전국악, 아코디언 연주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예술 공연'은 서울 탐골공원, 부산 용두산공원 누각 등에서 펼쳐진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09시 오픈! 22시 마감!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충청남도 정밀농업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한우가격의 2/3

와규 갈비살 20,000원
와규 눈꽃살 25,0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불포화지방산(올리고산)이 대부분인 와규전문점
- 돼지갈비 이상 메뉴 주문시 찜질방 20% 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